

영어몰입프로그램과 영어학습요소가 초등학교 아동의 영어능력 및 언어·문화선호에 미치는 영향

윤유진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몰입프로그램에 따라 영어학습요소, 영어능력, 언어·문화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영어몰입프로그램에 따라 영어학습요소가 영어능력 및 언어·문화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아 초등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몰입프로그램의 확대적용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광역시,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서 표집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220명이었고, 설문지와 평가지를 회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사회인구학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부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설계하였으므로 몰입프로그램과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의 부모의 학력과 직업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Cronbach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영어학습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영어몰입프로그램에 따라 영어학습요소가 영어능력과 언어 및 문화 선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선형 관계의 방향 및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몰입프로그램 실시여부가 해외경험, 영어학습 시작연령, 영어에 접하는 시간, 영어불안정도, 영어교사에 대한 만족,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권 문화에 대한 태도, 영어학습 동기화정도, 동기유형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해외경험, 영어학습 시작시기, 영어를 접하는 시간, 영어에 대한 태도, 도구적동기와 통합적동기에서 영어몰입프로그램과 비몰입프로그램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몰입프로그램과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의 해외경험 비교에서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이 영어권국가 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은 몰입프로그램 아동이 평균 7.0세,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이 평균 7.6세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어에 접하는 시간은 몰입프로그램 아동이 19.9시간,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은 13.2시간으로 몰입프로그램 아동이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영어에 대한 태도는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기유형에서는 도구적동기와 통합적동기가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몰입프로그램 아동이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에 비해 도구적동기와 통합적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어몰입프로그램에서 영어능력 중, 청취능력, 철자능력, 문법능력에서 더 우수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어몰입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라 영어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영어몰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아동의 청취능력($t=23.15, p<0.001$), 철자능력($t=102.61, p<0.001$), 문법능력($t=68.05, p<0.001$) 그리고 전체 영어능력($t=88.25, p<0.001$)이 비몰입프로그램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취능력은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이 19.18점, 비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이 17.3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철자능력은 몰입프로그램 아동이 17.16점인 반면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은 10.39점이었으며 문법능력은 각각 16.38점과 9.51점으로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영어몰입프로그램에 따라 영어선호, 국어선호, 서양문화선호, 전통문화선호를 알아보았는데 전통문화선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이 전통문화선호($t=2.96, p<0.01$)에서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국어, 서양문화와 전통문화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적 t -검증 하였다. 영어선호와 국어선호의 차이($t=-7.89, p<0.001$)가 유의하게 나타나 영어보다는 국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양문화선호와 전통문화선호의 차이($t=-12.84, p<0.001$) 역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서양문화보다는 전통문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은 영어보다는 국어, 서양문화보다는 전통문화를 매우 유의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어학습요소가 영어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어학습 시작연령, 영어를 접하는 시간, 영어불안, 영어교사에 대한 만족,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 영어학습동기화 등의 영어학습요소가 영어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 살펴보았다.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의 경우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어학습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어불안정도($t=-2.69, p<0.05$), 영어에 대한 태도($t=2.43, p<0.05$), 내적동기($t=-2.46, p<0.05$), 도구적동기($t=2.89, p<0.01$)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몰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영어불안정도가 낮고 영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내적동기와 도구적 동기가 높을수록 영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해외경험과 영어학습 동기화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해외경험($t=1.88, p<0.05$)과 영어학습 동기화정도($t=2.21, p<0.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은 해외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화가 높을수록 영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영어 학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능력에 미치는 요소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영어학습 요소가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의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는 해외경험,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 영어학습 동기화정도 요소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프로그램 아동들의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는 해외경험($t=3.20, p<0.01$),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t=2.48, p<0.05$), 영어학습 동기화정도($t=2.61, p<0.05$)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프로그램의 아동들은 해외경험이 있을 때,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그리고 영어학습 동기화 정도가 높을 때 영어 및 영어권문화에 대하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몰입프로그램의 경우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의 영어 및 영어권문화에 대한 선호는 영어권문화에 대한 태도($t=4.02,$

$p < 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프로그램여부와 상관없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태도는 아동들의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영어몰입프로그램 아동의 영어능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어학습요소는 영어불안, 영어에 대한 태도, 내적동기, 도구적 동기로 나타났다. 비몰입프로그램 아동의 영어능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요소는 아동의 해외경험과 영어학습 동기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몰입프로그램 아동의 영어 및 서양문화선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어학습요소는 해외경험, 영어권 문화에 대한 태도, 영어학습동기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몰입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유진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15 101호 한국교육개발원

전화: 02)3460-0262 010-6455-0714

이메일: eugene0924@kedi.re.kr